

#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다문화 교육 연구

Understanding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tudy

김미경\*\*/김성철\*\*\*

**국문요약** 세계화와 더불어 출신국이 다양한 외국인들이 일자리, 결혼 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로 몰려들고 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북한 이탈주민, 유학생 그리고 난민 등의 유입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다문화사회에 이 들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경제, 건강, 교육, 영양, 정치, 사회문화,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세계화,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 교육, 다문화가정

- 차례**
1. 서론
  2.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과제
  3.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배경과 문제
  4.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5. 결론

크의 형성으로 모든 사람이 국경을 초월하여 삶의 터전을 전 세계로 확대해가는 현상, 지구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면서 국경 없이 자유롭게 교류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를 실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지구상을 뒤덮은 세계화의 여파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일자리, 결혼 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로 몰려들고 있다. UN은 2007년 민족/인종/종족/언어/종교 등이 다른 195개 국가 출신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국을 다문화 국가와 이민 국가로 지칭하였다.<sup>2</sup>

한국 사회 내 외국인 증가율은 지난 2000년대 19.86%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2022년 12월 말 국내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총인구(51,849,861명)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 1. 서론

21세기는 전 지구의 대규모 이주가 보편화 된 시대이다. 국제사회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반목과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탈국가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란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와 네트워크

- 이 논문은 세한대학교 2024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제1저자)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교신저자)

1 김성혁 외, 『다문화의 이해와 건강』, 양서원, 2021, 46쪽.

2 남부현 외, 『다문화사회 교육론』, 양서원, 2019, 21~22쪽.

다.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이에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 비추어 UN은 2050년에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전체 인구의 2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sup>3</sup>

현대사회는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적 포용력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과의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정반대로 변화시켰다. 이는 닫힌 세계관과 절대적인 지식을 거부하며 개개인의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면서 세상과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온 변화이다. 다문화,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화적/사상적 변혁의 이면에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전승되어 온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유적, 오락, 예술, 예절, 종교, 사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문화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연계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각 문화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와 사회에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주류 문화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위계관계와 다양성의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나 지역사회 속에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자신의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하며, 가치/규범/언어/생활방식 등 모든 부분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어떤 국가 시민의 구성 다양성과 관련되어 여러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규정할 때,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집단들이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무시나 멸시를 당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의 다문화주의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는 차이가 있을 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 집단 간 문화뿐만 아니라 집단 내 소수자의 문화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sup>4</sup>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용광로' 모델을 거부한다. 용광로 모델은 사회 내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잃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문화주의는 셸러드 불에 담긴 재료가 각각 고유한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 내 다양한 문화집단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문화적 인권, 문화 다양성의 기본 가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성찰은 소수 민족과 집단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인류 유산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과 맥을 같이한다.<sup>6</sup> 유네스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활용을 창조와 진보를 이루는 동력으로서 소수자와 다수집단 양자에 의미 있는 일로 선언하고 있다.<sup>7</sup>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국가를 형성한 시점부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며 시작된 경우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근대화로 인하여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며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유럽 국가와 같은 후자에 속하며 세계화와 함께 외국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저개발국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노동인구는 선진국으로 이동하

4 김성혁 외, 앞의 책, 7~8쪽.

5 장인실 외, 『다문화 교육』, 학지사, 2022, 31쪽.

6 남부현 외, 앞의 책, 17쪽.

7 정지아, 『한국 다문화 교육의 철학과 방향 탐색』, 『교육철학연구』 37(3), 2015, 191쪽.

3 장미야, 『다문화와 글로벌리티』, 양서원, 2023, 320쪽.

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학력과 소득증가에 따른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이 유입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성비 불균형의 심화,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신자유주의와 국제이주 등의 국내외적 요인은 국제결혼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다문화 부부에게서 출생한 자녀들도 증가하게 되었다.<sup>8</sup> 2017년 기준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8만 9천여 명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sup>9</sup>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은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다.<sup>10</sup> 우리나라는 1977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주 배경 자녀는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구분되고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유학생, 난민 등의 자녀를 포함한다.

이주 규모가 커지고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인구학적,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일련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왔다. 한편,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나 고정관념, 인종주의 등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여 다문화가정의 불안과 해체가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국가적 문제는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주민의 정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한 악순환을 끊고 우리 사회가 여러 이주집단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

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성숙과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21세기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sup>11</sup>. 편견과 고정관념의 타파라는 태도 형성을 통해 문화적 역량, 다문화 시민성을 길러 다문화주의적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와 과제를 파악하고 또 한국 다문화 가정의 배경과 문제를 분석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끌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다.

## 2.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과제

21세기의 대규모 국제이주와 관련된 인구이동, 세계화 등의 국제적인 요인과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오랫동안 이어진 남아선호 사상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 문제,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의 활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가적 위상 제고 등의 국내적인 요인이 한국 다문화사회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sup>12</sup>.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감소는 2026년 0.69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는 고령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6%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

8 이성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이해』, 양서원, 2023, 105쪽.

9 구정화 외,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정민사, 2021, 70쪽.

10 이민경,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교과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2015, 157~159쪽.

11 김은미 외,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10, 20쪽.

12 안진숙 외,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동문사, 2022, 55~57쪽.

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sup>13</sup>. 2022년 12월 말 국내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을 넘어서, 총 인구(51,849,861명)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sup>14</sup>

한국의 지속적인 자연인구 감소에 대응해 아시아 국가로부터 취업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인구가 다양화되고, 최근 정주 외국인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하여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거주, 중도입국자 자녀 증가 등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영속적인 구성원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020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가 29%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뒤로 외국 국적 동포가 17%, 결혼이민자가 9.8%, 유학생이 9%, 기타 외국인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귀화한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숫자는 결혼이민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편이다.<sup>15</sup>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다문화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시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통합정책은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자는 결혼이민여성이나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6</sup>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여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그리고 난민 등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에서의 다문화와 사회적 변화의 현황을 대변하는 구성원이다. 국민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을 말하며, 혼인 귀화자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은 82.4%로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율인 17.6%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sup>17</sup> 결혼이민여성은 베트남,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 비율이 높고 부부간 나이 차이도 10년 이상으로 높다. 그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sup>18</sup> 그들은 대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지 않고 한국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이해의 어려움, 가부장적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수직적 관계, 가정경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 차별과 심리적 외로움 등 여러 사회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sup>19</sup> 결혼이민여성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은 결혼부터 생활 적응,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결혼이민여성의 가족, 이웃을 통합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호 문화 교육, 가족 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갈등 해결, 역량 강화,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로 국내 정착이 현

13 장미야, 앞의 책, 320~321쪽.

14 김성혁 외, 앞의 책, 15~16쪽.

15 장인실, 「한국 다문화 교육의 쟁점과 개선방향」, 『교육광장』 7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14쪽.

16 양근숙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동문사, 2024, 85쪽.

17 위의 책, 68쪽.

18 위의 책, 346쪽.

19 남부현 외, 앞의 책, 232~234쪽.

재 허용되지 않은 단기 체류 순환형 이주노동정책인 고용 허가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노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국가에서 사는 노동자는 더욱 적극적인 생계와 직업적 활동을 위해 자신의 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여 더 많은 보수를 주는 노동에 종사한다. 다양한 소수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익숙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한국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이주국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의 생존권으로서의 노동권은 이주국에서 보장해야 한다. 1999년부터 안산외국인근로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 지역공동체인 ‘국경 없는 마을’은 지자체의 정책적 도움으로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주 사례로 국내 최대의 이주민 집단 거주지인 안산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이 인접한 원곡동 마을을 지칭한다. 현재는 차별문화를 극복하고 다문화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나 작업장 이탈과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인권상황이 국제사회 및 국내 시민단체의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한국인력공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직장 생활의 심리적 안정과 사업장 조기 적응 지원책, 상담 및 지원센터운영, 근로자/사업주 대상 교육, 교육 훈련 지원책,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귀국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교육 및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sup>20</sup>

이주 배경 자녀는 다양한 이주 및 가족 형성 경로에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화 및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을 말한다. 2021년 이주 배경 초/중등학생의 수는 160,056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 중 이들의 비율은 3%를 차지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11,371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학교가

33,950명, 고등학교가 14,307명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가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829명(3.4%), 중학교 7,177명(26.8%), 고등학교가 1,829명(14.7%)으로 증가하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sup>21</sup> 이들의 개별적인 특징이 다양한데 반해 한국 교육체계는 획일화되어 있어서 그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문제,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 소외 및 배제, 차별, 학교 부적응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주 배경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다문화 학교 및 각종 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020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3670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치적 동기보다는 빈곤 탈출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입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탈북 동기의 변화와 가족동반 입국 여성,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2</sup>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의 꿈과 목표를 키워주고 친밀감 있는 사회지지를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적응 유연성, 직업의식을 길러주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sup>23</sup> 북한이탈주민은 이질적인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기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과 국가는 이들이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sup>24</sup> 세계

21 장인실, 앞의 논문, 14쪽.

22 김성혁 외, 앞의 책, 81~82쪽.

23 위의 책, 81~83쪽.

24 장인실 외, 앞의 책, 21쪽.

20 남부현 외, 앞의 책, 301~328쪽.

화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경제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출신국은 2021년 기준 중국(67,348명), 베트남(35,843명), 우즈베키스탄(8,242명) 순으로 많고, 비율로 보면 중국(44.2%), 베트남(23.5%), 우즈베키스탄(5.4%)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급감, 등록금 수입금 감소로 인한 재정난 가중, 글로벌 인재유치 전쟁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5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를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학부보다 학위과정 유학을 선택하는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152,281명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20,018명으로 전체 대비 78.8%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외국인 유학생은 중요한 교육 소비 주체이므로 국내 대학은 그들의 요구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긍정적인 유학 생활은 앞으로 유학생이 자국에서 친한국적 인재로 활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우리 대학생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는 국제적인 교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난민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 전쟁이나 정변을 피해 타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망명자 또는 피난민, 생활이 궁핍한 극빈자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상적/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집단 망명자를 난민이라고 하고 있다. 1994년 이후 2020년 6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 9,636명이며, 이들 중 1,058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232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sup>26</sup>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문화

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어 교재 개발, 가족지원정책,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멘토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sup>27</sup> 난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취업, 한국어 공부, 자녀교육 정보 등 서로 도움을 주고, 또 한국인 멘토 및 커뮤니티 활동, 신앙생활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조선족 여성과 우리나라 농어촌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다문화사회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중국동포 및 재외동포 등 외국인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증가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정, 다문화 학교, 다문화 지역공동체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가 일고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잠재성장률, 미래의 성장 동력, 사회경제적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이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는 학교와 사회에서 다인종적, 다문화적 수용성과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상호존중과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복수의 문화집단 간의 공존과 상생을 이루는 국가적 이념과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sup>28</sup>

### 3.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배경과 문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부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

25 이성순, 앞의 책, 242~243쪽.

26 김성혁 외, 앞의 책, 94쪽.

27 위의 책, 96쪽.

28 이형하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이해』, 2015, 공동체, 14쪽.

국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은 자가 속한 가족이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한다.<sup>29</sup> 여기서 제한하는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족은 크게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통칭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형태로는 결혼이민자와 혼인 귀화자이다. 결혼 이민자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혼인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다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국제결혼이 한국에서 전체 결혼 건수 중 거의 10% 내외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 남성 10중 8명이 초혼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재혼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은 대개 한국인 남성이 결혼이민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로, 다른 가정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UN의 조사에 의하면, 국적별로 몽골은 4.45명, 필리핀은 3.22명, 우즈베키스탄은 2.7명, 베트남은 2.32명으로 대부분 2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여 준다.<sup>30</sup> 문화혁명을 통해 남녀평등사회로 전환된 중국이나 부계와 모계를 똑같이 존중하는 ‘양면제’를 취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과 부부 의사소통 및 언어의 문제로 결혼 안정성이 위협받고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부부 폭력이 47.7%로 일반가정의 건수보다 7.4%가 높다.<sup>31</sup> 결혼 초기에 남편이 일차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갈등에 대처하는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 초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겪게 되어서 부부가 알고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부부 사이 긍정적인 친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sup>32</sup>

우리나라는 1977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주 배경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9.3%로 아직까지는 소수이다.<sup>33</sup> 국제결혼가정의 유형별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혹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과 재혼한 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이고, 특히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사이에 태어난 ‘코시안’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구현과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적응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편견, 어머니의 빈약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 아버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성장해 온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갈등은 흔히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서 표면화된다. 아이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의 제약과 교육성과의 격차로 인해 조롱과 따돌림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중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자녀는 단지 17%이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자녀는 43%나 된다.<sup>34</sup> 외국인이라는 높은 응

29 장인실 외, 앞의 책, 51쪽.

30 구정화 외, 앞의 책, 71쪽.

31 위의 책, 71쪽.

32 남부현 외, 369쪽.

33 김성혁 외, 앞의 책, 84~85쪽.

34 구정화 외, 앞의 책, 74쪽.

답률은 그들의 정체성 갈등이 한국에서의 편견과 차별에 기인하고 있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준다. 정체성 정립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sup>35</sup>

‘가족동반 불허’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 혹은 인종차별이나 편견 등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면하는 사회문제이다.<sup>36</sup> 유입 초기부터 제기된 노동권과 인권 문제에 더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주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결혼과 가정,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재결합, 부모 돌봄, 자녀의 보양 및 교육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sup>37</sup>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이주한 경우이다. 이들도 한국어 소통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고, 부모의 불완전한 한국어와 낮은 한국 문화로 빈번한 오해와 불통, 단일민족 논의나 국가주의적 관점에 따라 서술된 역사 교과서 내용 등으로 한국 학생들과 갈등과 마찰 등을 경험한다. 몽골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가 삼별초 항쟁을 배우면서 ‘한국과의 싸움에서 몽골이 졌다’는 이야기는 국가주의적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다문화적 관점의 필요성을 환기한다.<sup>38</sup>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자녀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학령인구는 12,281명으로 2010년의 1,748명과 비교하여 약 7배 증가하였다.<sup>39</sup>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은 다른 다문화가정에 비해 한국과 가장 비슷한 문화와 언어로 인해 적응하기가 쉽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단 이후의 미묘한 문화와 언어 차이, 또 다른 사회체제 등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이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의 이별, 죽음, 발

각과 체포에 대한 공포, 공개처형 목격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적 적응의 문제를 초래한다. 더욱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정신적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나 상담 기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치유가 필요하고 정부 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정서적 결핍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북한 혹은 제3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동, 청소년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이들도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언어의 차이, 정체성의 갈등, 체제 혼동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중도탈락률이 높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업중단율은 3.0%로 일반 학생들의 0.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다양한 이주 배경 자녀의 어려운 문제인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 사회에서는 그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교육 이탈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고려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지형을 주도해온 결혼이민여성과 외근인 근로자가 꾸리는 다문화가정은 계속 증가 추세다. 국제결혼가정은 한국 남성의 혼인율 증가, 다자녀 출산,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인구 증가 및 가사 노동의 제공,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겨난 인구구조의 기형적인 변화에 사회적 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시장 및 국가 간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들의 근로 활동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한편 내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내국인의 노동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중언어

35 김성혁 외, 앞의 책, 105쪽.

36 남부현 외, 앞의 책, 236쪽.

37 이형하 외, 앞의 책, 27쪽.

38 구정화 외, 앞의 책, 84쪽.

39 위의 책, 77쪽.

40 김성혁 외, 앞의 책, 109쪽.

능력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여 이주 배경 자녀를 국가 간 교류를 매개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인재로서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인구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도 이주민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차별이 여전하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다문화 교육에 대해 분석한다.

#### 4.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다문화 교육은 자유, 정의, 평등, 인간존중의 민주적 사고에 기초한 실천적 교육 개념이다. 다문화 교육의 선구자인 벅크스는 ‘다문화 교육은 교육기관의 구조를 바꾸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정의한다. 캠벨은 ‘다문화 교육이란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높이는 교육’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베넷은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평등교육, 교육과정 개혁, 다문화 능력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으로 설명한다. 평등교육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똑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상황이 똑같이 제공되는 상태를 말한다. 평등교육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배려 계층을 위한 교육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학습 과정이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의 교육이 고려된다. 교육과정 개혁은 단일민족 혹은 주류 집단의 중심의 관점에서만 기술되었던 기존의 교육내용에 다민족적이고 전 지구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타자의 편에서 현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 개혁은 평등교육이나 형평성 교육의 실현을 위한 필수 영역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수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가정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문화나 구성원에 대하여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협력하는 태도로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필요한 적응능력이다.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내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의를 향한 교육은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그와 관련된 적절한 태도와 사회적 행동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차별에 대한 투쟁과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sup>42</sup>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우리 사회 속에 다문화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2006년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과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교육지원계획’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및 교사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 요소 반영, 학교 교육 및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조기 교육방안 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이주 배경 자녀교육 지원은 다문화주의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와 학교 적응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에서는 이주배경 자녀와 부모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주 배경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결혼이민자가정이라는 용어가 다문화가정으로 대체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까지도 정책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정책에서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동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 확인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해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였다.<sup>43</sup>

41 안경식 외,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9, 98~99쪽.

42 장인실 외, 앞의 책, 87~91쪽.

43 이민경, 앞의 책, 161~164쪽.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 교육청 맞춤형 사업지원 계획(2009-2012년)에서는 소수자 교육뿐만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일반적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시민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중도입국 이주 배경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가 주요 정책대상으로 등장하였고 이들의 입학 및 편입학을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위해 학비와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그 결과 2015년에는 다문화유치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2012년은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역사에서 큰 획이 그어진 시점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능력에 맞는 단계별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한국어 교육의 토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초중등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고,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가 연이어 개발, 배포되면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된 것이다.<sup>44</sup>

아울러 진로/진학상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서 이주 배경 학생 특별 전형 모집이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다문화 예비학교 및 국제다문화학교, 한국폴리텍학교, 인천한누리학교 등과 같은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등을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학교, KSL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방과 후 학교, 방학 중 한국어 프로그램 및 주말 학교를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가 다문화 교육 정책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9년에는 학교급 전환기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의 도입으로 초중등학교의 입학 준비교육으로서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다문화 교육 정책은 교육 취약계층인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어, 특히 그들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 1.17%, 2018년 1.03%, 2019년

0.95% 등으로 연속 감소하였다.<sup>45</sup> 정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지역에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다문화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6%에 불과하며, 이는 다문화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전공별 특성에 따라 접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sup>46</sup>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일반 대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양 교육이 필요하고, 또 사범대학생, 의과대학, 간호/보건 대학 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대상 다문화 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핵심과제는 소수자의 주체화, 다수자 변화, 공동체 만들기에 있다.<sup>47</sup> 다문화 사회교육은 소수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주체화에 주안점이 있다. 즉, 출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수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소수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공동체 만들기에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한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접촉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적응은 개인의 내면과 외부의 물리적 환경 간의 조화를 이루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주민의 적응을 위해서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주류의 체계적이고 지속

45 김성혁 외, 앞의 책, 121~122쪽.

46 위의 책, 98~100쪽.

47 안경식 외, 앞의 책, 99쪽.

44 장인실 외, 앞의 책, 315쪽.

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sup>48</sup> 문화적응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처하고 세계관을 확대하여 주류의 행동과 가치관에 익숙해지는 균형 잡힌 문화적응이란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이원적인 관점과 이해는 다문화 교육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sup>49</sup>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동등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나, 정기적으로 부부나 가족의 문제, 부모/자녀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실력이 낮은 경우 자녀의 학교 숙제를 도와 주기 어렵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낮설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부모를 학교에 초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로 설명하여 그들이 자신감을 얻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취업 등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자녀 보육, 기술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 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자활교육도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취업교육 및 기술훈련 방안이 요구된다.<sup>50</sup>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문제는 노동력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의 문제이거나 또 새롭게 등장한 복지 대상으로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로 이해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체류 조건이 완화되어 복지와 국경 없는 시민권 영역의 확대가 계속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노동 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소수자 스스로 주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85.1%가 체류 기간 만료 후

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1</sup>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상응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에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수평적 관계와 자기 주체성을 바탕으로 그 어떤 문화권과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양하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대한 실천적 훈련이다.<sup>52</sup>

한국 사회는 다수와 소수집단 간에 혹은 소수자들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여러 갈등상황과 이해관계에 직면한다. 가족 갈등 혹은 사회적 폭압과 부조리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보호와 가족지원, 차별금지와 문화적 권리 보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생활권 및 인권 존중, 이주 배경 자녀의 소통과 상호작용, 정체성과 자아 효능감 증진, 창의성과 혁신 역량 개발 등은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과 인식개선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 5. 결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급증이다.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한국 남성의 필요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인력을 찾지 못하는 한국 노동 시장의 요구와 출신국보다 더 많은 임금이 보장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중국동포 및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오는 북한이탈주민, 그 밖에 최근 급증한 유학생, 난민 등이 한국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다문화공동체

48 남부현 외, 앞의 책, 70쪽

49 위의 책, 61쪽

50 김성혁 외, 앞의 책, 358쪽.

51 이성순, 앞의 책, 147~148쪽.

52 안경식 외, 앞의 책, 100쪽.

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한국인의 시선은 따뜻한 관심과 배려보다는 호기심과 무관심에 가깝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서의 아주 짧은 이민의 역사, 자문화 중심주의,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폐쇄적인 전통, 우리가 아닌 타자에 대한 친화성을 갖지 못한 심리상태에 있다. 이는 21세기 다문화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후진적인 사고방식이다. 인종, 민족,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다양한 시민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모색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순수혈통의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에서 비롯되는 '다름'에 대한 무지와 편견, 차별과 배제의 관행에서 벗어나 포용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다문화, 다문화주의에 기인한 갈등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절박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은 소수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안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정책적 강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목적과 삶의 방향성, 또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다급한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성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난 열정으로 다수의 소수집단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선진화된 다문화 환경을 만들고 이질적인 사회구성원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 교육은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 교육,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다문화공동체에 친화적인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구정화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정민사, 2021.  
 김성혁외, 『다문화의 이해와 건강』, 양서원, 2021.  
 남부현외,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2019.  
 안경식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9.  
 안진숙외,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동문사, 2022.  
 양근숙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동문사, 2024.  
 이민경,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2010.  
 이성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양서원, 2023.  
 장미야, 『다문화와 글로벌리더십』, 양서원, 2023.  
 장인실외, 『다문화교육』, 학지사, 2022.

---

**Abstract****Understanding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tudy**

Kim, Mi-Kyoung · Kim, Sung-Chul | Sehan University

The 21st century is an era in which large-scale migration around the globe has become comm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henomenon of post-statehood is accelerating as economics,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exchanges are actively progressing at a global level, breaking away from the ideological antagonism and hostile relationships of the past. In the aftermath of globalization that has enveloped the world, various foreigners are flocking to the Korean society, which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for reasons such as jobs, marriage, or studies. Multiculturalism refers to linking, reflecting, and applying the cultures of several countries, emphasizing the differentiation of each culture, and pursuing cultural diversity. When defining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society comprised of various races and ethnicities in relation to the diversity of citizens of a country, multiculturalism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different racial and ethnic groups have equal human rights and are not ignored or despised.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labor along with globalization. As the immigration of foreigners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a series of social services have been provided to them, 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economic support, and stabilization of life. However, social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mmigrants are still becoming social problems, and there is also a phenomenon of avoidance of Korea in Southeast Asia. At the same time, anxiety and breakup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and their labor rights issues resulting from foreign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poor working environments are becoming more serious. In order to overcome the absurd vicious cycle that occurs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of foreign immigrants and to realize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people live together by utilizing the positive aspects of cultural diversity, our society must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sublimate it into energy for the matur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In this paper, we seek to identify the aspects and challenges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lead a healthy multicultural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globalization,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y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